

MOVIE

MOVE
BY **STORY**
VOL. **10**

20130410

당신을 흔드는 일상의 여행, 오늘도 무브하세요!



PHOTOGRAPH BY NICK WILSON

INDEX

TRAVEL

손미나의 여행사전 - 원통 one-통한 도시, 독일 베를린 Berlin, Germany

여행 친구 - 영화감독 이재용의 통하는 뒷담화

PEOPLE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 - polyglot 비보이 선현우

MUSE

소통의 非劇

MOVE by STORY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변화시키는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발견해 소개합니다.

MOVE by STORY는 세상 사람 모두가 자기만의 이야기를 갖게 되길 꿈꿉니다.

MOVE by STORY VOL.10

발행

브랜드 스토리텔링 컴퍼니 (주)봄바람

www.bombaram.net / 02-3142-0588

bombaram@bombaram.net

<http://www.movebystory.com>

발행일

2013년 4월 10일

발행인

김상아

스토리텔링

김상아, 선민정, 김정예, 김보미

디자인

김광혁(R2D2)

일러스트

민지홍

사진촬영

한소라외

도움주신 분들

여행 팟캐스트 <손미나의 여행사전> www.facebook.com/travelpodcast

출판사 이야기나무 www.yiyaginamu.net

R2D2 visual www.facebook.com/r2d2visual

MOVE by STORY를 만나는 방법

1. 매월 10일, 20일, 30일 <손미나의 여행사전> 팟캐스트와 PDF가 함께 업로드됩니다.
4페이지 팟캐스트 구독방법을 참고해주세요.

2. 동네서점 팅스북스 www.thanksbooks.com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총대점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67-13 더컬러리 1층 / 가로수길점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34-18 5F



손미나의 여행사전

한 달에 세 번, 귀로 듣고 상상으로 떠나는
프리미엄 여행 팟캐스트

여행지 테마



MARAIS

영감

1회 with 윤종신
창조적 영감으로 가득 찬
프랑스 파리 마레



PRAGUE

낭만

2회 with 최극 여배우들
낭만의 도시
체코 프라하



LOWER MANHATTAN

변화

3회 with 원더걸스 예은
변화의 에너지가 넘치는
미국 뉴욕 로어 맨해튼



VENICE

비밀

4회 with 유희열
비밀을 간직한 도시
이탈리아 베니스



QUEBEC CITY

도착

5회 with 이적
출발과 도착이 공존하는 곳,
캐나다 퀘벡



LONDON

추리

6회 with 김석훈
모두가 명탐정이 되는 도시,
영국 런던



BORMES-LES- MIMOSAS

7회 with 이영미
노란 맥박이 뛰는 절정의 세계,
프랑스 볼-레-미모자 마을



SICILIA ISLAND, ITALY

8회 with 김수로
살아있는 자만이 누리는 천국,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BERLIN, GERMANY

10회 with 이재용 감독

One-通(원통)한 도시,
독일 베를린



극지

9회 with 윤승철
지상의 끝에서 만나는 도전

TRAVEL

손미나의 여행사전

One-通(원통)한 도시, 독일 베를린 Berlin, Germany

스토리텔러 김보미 — ddang@bombaram.net

예술의 정통을 새롭게 써나가는 곳

낯선 사람들과도 쉽게 통할 수 있는 곳

원통했던 과거를 통해 더 성숙한 오늘을 만든 곳

원통冤痛한 역사를 가졌던 독일 베를린은

이제 원통one-通한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원통한 도시, 베를린의 특별한 5가지 매력포인트를 살펴보자.



〈손미나의 여행사전〉 팟캐스트는 매월 10, 20, 30일 3회 발행됩니다.

손여사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travelpodcast>

아이폰 사용자 - <https://itunes.apple.com/kr/genre/podcast>

안드로이드 사용자 - <http://www.podbbang.com>

〈손여사를 만드는 사람들〉 진행 손미나 패널 바닐라시티 감독 이예결 대본 윤선에 프로듀서 문두열 음악 이택승 진행 한소라 최진주

BERLIN, GERMANY

독일 베를린



● 베를린 영화제가 열리는 곳

● 브란데부르크문

● 예술의 도시 베를린&타헬레스

● Watergate

● Berghain – Panorama

베를린의 매력포인트 1

뜨겁게 통하다, 베를린 클럽 Clubbing City Berlin

여행지에서 낯선 사람들과 가장 빠르게 통할 수 있는 요소는 바로 음악이다. 베를린에서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몸짓만으로 충분히 통하게 된다. 세계 100대 클럽 중 손꼽히는 클럽 10개가 모두 베를린에 모여있고, 주말마다 1만 5천여 명의 관광객이 클럽bing을 위해 올 정도로 이곳의 클럽 문화는 뜨겁다. 베를린의 클러버들은 불필요한 접촉이나 즉석만남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음악과 춤을 즐기기에 방문한다. 그렇기에 나이 불문은 물론, 복장도 자유롭다. 세계 최고의 사운드 시스템이 갖춰진 클럽 '베르그하인'. '파노라바마'는 전세계 클러버들의 메인 무대다. 눈빛과 몸짓으로 통하는 정통 클러빙을 경험해 보자.





베를린의 매력포인트 2

맛으로 통하다, 커리 부르스트 Curry Wurst

클럽에서 한참 열정을 쏟고 나와 진이 빠져있을 당신에게 특별한 먹거리를 추천한다. 독일의 국민간식, 커리 부르스트다. 주재료는 카레와 소시지로 보면 되는데, 탱글탱글한 소시지를 한입 크기로 잘라서 그 위에 케첩과 카레 가루를 술술 뿌려 먹는 음식이다. 빵이랑 곁들여 먹기도 하고, 마요네즈를 뿌린 감자튀김을 함께 올려 먹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떡볶이가 고향을 그리는 음식이 됐듯 커리 부르스트는 베를린의 '고향의 맛'으로 꼽힌다. 베를린을 여행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리워한다는 커리 부르스트. 베를린에서 꼭 맛봐야 할 그리움의 맛.

베를린의 매력포인트 3

영화로 통하다, 베를린국제영화제 IFFB

베를린은 다른 유럽 도시들보다 상대적으로 관광객이 적은 편이다. 하지만 매년 2월이 되면 이방인들로 가득 찬다. 바로 베를린에 레드카펫이 깔리기 때문이다. 유럽의 3대 국제영화제 중 하나인 베를린국제영화제는 1951년 동서화합과 통일을 기원하며 개막됐다. 베를린 영화제의 황금곰상을 받는 것은 영화인에게 최고의 영예가 아닐 수 없는데, 이 상은 일반 관객들의 투표로 결정이 된다. 칸 영화제와 베니스 영화제가 '영화인만의 축제' 같은 성향이 강하다면, 베를린 영화제는 영화인과 관객 모두를 위한 축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자랑스러운 것은 매년 베를린 영화제에 한국 영화가 초청되고 있다는 점. 올해에는 이재웅 감독의 영화 <뒤틀림> 감독이 미쳤어요, 홍삼수 감독의 <누구의 딸도 아닌 해원> 등 무려 5편의 한국 영화가 초청되었다.





베를린의 매력포인트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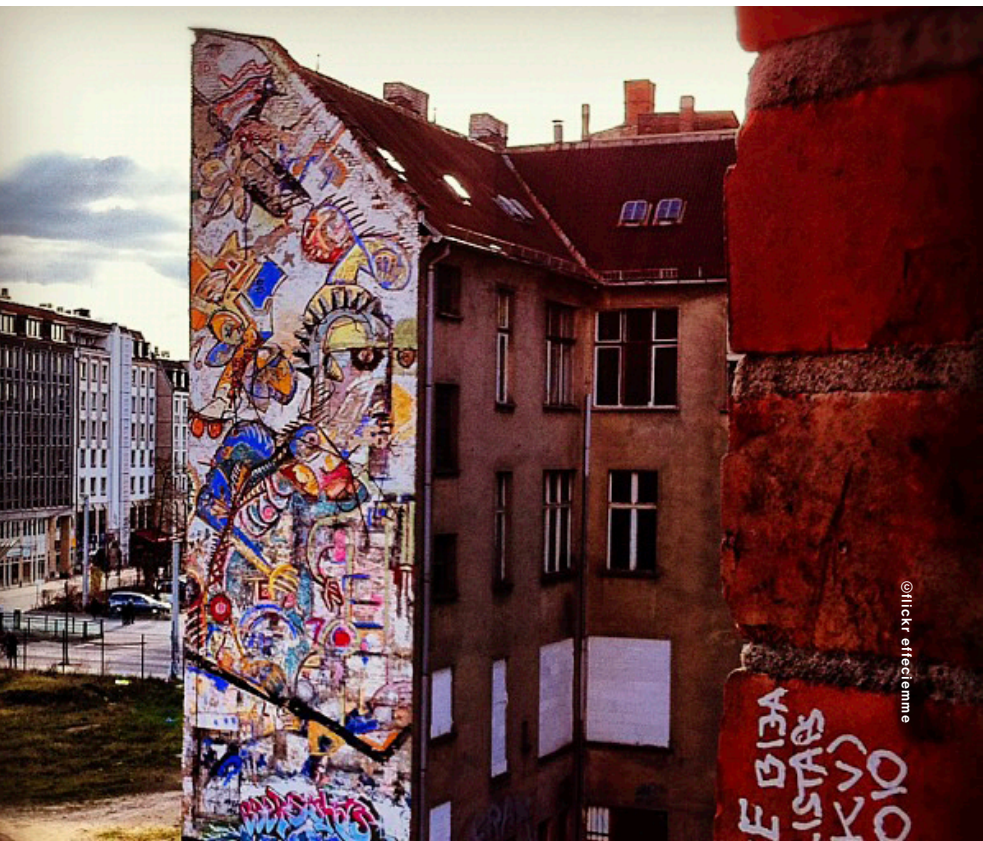
예술로 통하다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 East Side Gallery

베를린에 가면, 베를린 장벽의 흔적을 살펴보는 것을 추천한다. 첫째, 베를린 장벽은 의외로 볼 것도 많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총길이 155Km의 베를린 장벽 중에서 1.3Km는 그대로 남겨두어 평화, 자유, 의지, 화해 등의 주제로 다양한 그림이 그려져 있다. 베를린에서는 이곳을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라고 부른다. 이곳이 의미가 있는 건, 실제 역사와 그것에 대한 감정이 그대로 녹아있는 작품이기에 미술관의 정제된 명화를 보는 것보다 더 깊은 울림과 감동을 주기 때문이다. 1.3Km를 천천히 걸으면서 작품과 통해 보는 건 어떨까.

타헬레스 Tacheles

베를린 장벽이 소중한 두 번째 이유는 베를린을 분단의 도시에서 예술의 도시로 새 출발하게 된 첫 단추이었기 때문이다. 베를린에는 예술가들의 아지트이자 명물인 곳이 하나 있다. 바로 '쿤스트할레 타헬레스'라는 곳이다. 건물 내외부가 온통 그래피티로 도배되어 있고 다소 음산한 기운을 뿜고 있어서 무서워 보일지 모르나 막상 들어가면 신세계가 펼쳐지는 곳이다. 타헬레스는 한 때는 백화점으로, 또 한때는 전쟁 포로를 가두던 수용소였다. 그 후 건물이 사용되지 않고 있었는데, 작업실이 없던 베를린 예술가들이 집단 시위를 하면서 점령했다. 건물이 흉물스러워서 베를린 시는 이 일대를 철거하고 재개발을 하려 했으나, 결국 예술가들의 강한 의지를 꺾지 못하고 소중한 문화공간으로 보존하기로 했다. 타헬레스에서 자유로운 예술혼을 느껴보자.





베를린의 매력포인트 5

스토리로 통하다 그림형제의 동화

백설공주, 신데렐라, 헨젤과 그레텔, 라푼젤, 브레멘 음악대……. 어릴 적 누구나 읽어본 적이 있는 ‘그림 동화’. ‘그림동화’는 그림이 있는 동화를 뜻하는 게 아니다. 독일의 야콥 그림 Jacob Ludwig Carl Grimm과 빌헬름 그림 Wilhelm Carl Grimm 형제가 함께 만든 동화라서 붙은 이름이다. 독일에서 오랫동안 전해져 온 민간설화를 그림형제가 모아서 책으로 만든 것이 바로 그림동화다. 그림 형제가 수집한 민화는 사실 동화로는 적합하지 않은 이야기가 많다. 민담의 원작이 하나같이 다 잔혹하고 무시무시했기 때문이다. 독일어 사전 초판을 만들기도 했던 독일의 언어와 문학학자인 그림형제는 낭만파 문학에 취해 잔혹한 민담을 아이들의 감성과 도덕적인 동화로 재탄생시키며 평생을 베를린에서 그림동화를 엮었다. 그들의 향토적이고 낭만적인 감수성이 전세계로 통한 것이다.

여행 친구 영화감독 이재용의 통하는 뒷담화

스토리텔러 선민정 — haneul@bombar.com.net

〈정사〉, 〈다세포소녀〉, 〈스캔들-조선남녀상열지사〉, 〈시네노트〉, 〈여배우들〉에 이어 최근 〈뒷담화:감독이 미쳤어요〉라는 실험적 영화로 돌아온 이재용 감독. 베를린 영화제 단골 감독인 그가 1시간 넘게 풀어놓은 베를린 여행에 대한 뒷담화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당장 짐을 싸게 만드는 마력을 뽐내었다. 통하고도 남을 베를린 뒷담화, 지금부터 만나보자.

Q 최근 개봉한 〈뒷담화:감독이 미쳤어요〉 영화가 아주 독특한데..

어느 기업으로부터 스마트폰으로 찍는 단편영화를 의뢰 받아 기획이 시작되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촬영 현장에 감독이 없고 원격으로 연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상상하다 그대로 실행하게 됐다. 사실 원격연출은 결정하고 난 후 '감독이 현장에만 없으면 되겠지.....' 했는데 촬영 이들 전까지도 스태프들과 회의를 거듭하다가 실제로 LA로 떠나버렸다. 재미있는 점은 이런 설정에 대해 배우들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했는데 첫 촬영에서 정말 내가 LA에서 모니터로 인사하니 배우들이 놀랐고 거기서부터 촬영이 시작되었다.

Q 실제 원격연출 하는 기분은 어땠나?

원격연출이다 보니, 나는 한 사람이지만 카메라 모니터만 있다면 회의실에도, 촬영장에도, 분장실에도 어

디든 여러 명으로 존재해 지시하고 대화할 수 있었다는 게 흥미로웠다.

Q 이번 영화도 초청된 것으로 아는데 영화제로 만난 베를린은 어땠나?

이번이 네 번째 초청인데 베를린 영화제는 매년 2월에 열린다. 베를린은 독일의 북쪽에 위치한 도시라 늘 겨울에만 가니 아쉬움이 있다. 지인들 이야기로는 베를린의 여름이 정말 좋다고 한다. 간느 영화제는 5월이라 계절 탓인지 영화제 자체를 즐기는 영화인들의 축제가 된다. 반면 베를린은 독일인의 특성도 그렇고 계절도 그렇고 제법 진지한 편이다. 레드카펫도 있지만 다소 형식적이다.

Q 베를린은 많은 예술가들이 통하는 도시라던데 실제로 예술의 향기가 느껴졌나?

미술사의 흐름과도 맞물려있는 것 같은데 19말~20



세기 중반까지 미술사 해게모니는 프랑스가 쥐고 있었으나 모더니즘, 팝아트 등으로 미국이 주도하다가 통일 이후 독일이 그것을 가져오기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배고픈 젊은 예술가들이 베를린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것 같다.

Q 베를린에 대해서 표현한다면?

다른 도시와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지만 파리는 화장한 여자, 혹은 디지털처럼 화려한 것 같고 런던은 과하지 않은 편안함이 있다. 반면 베를린은 유혹이나 트렌드에 휩쓸리지 않고 사색하거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도시라고 생각한다. 쿨하고 쉬크하다. 그러면서도 클럽문화 같은 내재된 열정도 있는 매력적인 도시라고 생각한다.

Q 여행에서 영감을 받는 편인가?

지방에서 태어났는데 늘 넓은 세상에 대한 굶주림으로 떠나는 것을 꿈꿔왔다. 어릴 때는 영화를 보면서 대리 만족했고 20대 초에는 한을 풀기라도 하듯 배낭여행을 1년이나 다녀왔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어릴 적 영화감상과 최초의 배낭 여행을 통해서만 들어진 것 같다. 첫 여행이란 정말 좋은 것이다. 누군가 내게 가장 좋았던 여행지를 물어보면, 아직 가보지



않은 곳이 가장 좋은 여행지라고 항상 대답한다. 나이가 들수록 첫 번째의 설렘이 줄어든다. 여러분들도 가보지 못한 곳을 아직 갈 곳이 있다는 생각으로 전환해 마음껏 즐겨워하셨으면 한다. 그런데 난 아쉽게도 베를린을 네 번이나 다녀왔다. (웃음)

※ 이재용 감독의 베를린 뒷담화는 여행 팟캐스트 〈손미나의 여행사전〉을 통해 자세히 들을 수 있다.

▶ 본 인터뷰는 팟캐스트 방송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 - polyglot 비보이 선현우 자전거 배우듯 언어를 익히고 즐겁게 **통하면** 기회가 열린다

스토리텔러 김상아 — baram@bombaram.net

“영어, 불어, 일본어는 우리말처럼 자유롭고요, 중국어랑 스페인어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이탈리아, 포르투갈어, 인도네시아어, 필리핀어 그리고 독일어도 소통할 수 있는 정도로 배우는 중이에요.” 선현우 씨는 다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폴리글랏(polyglot)’이자 세계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야. 비보잉을 하다 목을 다쳐 병원에서 장시간 힘든 치료를 받은 직후임에도 인터뷰 시간을 미루지 않고 약속 장소에 나온 그는 그저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던 자신이 어떻게 폴리글랏이 되어 세상과 통하였는지, 15년차 비보이로 끊임없이 다치고, 아프면서도 왜 비보잉을 계속하는지에 대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복도에서 영어로 인사하는 원어민 선생님께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몹시 자존심이 상하고 답답했어요. 그때부터 영어공부를 시작했고, 일주일 동안 준비해서 매주 한 번씩 원어민 선생님과 대화를 시도했죠. 그런데 하면 할수록 할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이렇게 영어공부에 재미를 붙인 그는 교육부장관배 고교영어경시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고, 1999년 외국어 특기자로 고려대 불문과에 입학했다. 그는 입학과 동시에 학교 비보이팀에 들어갔는데, 그때만 해도 비보잉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용산에서 구입한 해외 비보이들의 비디오 테이프를 달도록 돌려 보면서 동작 하나하나를 익혀나가는 했다. 이후 몇 년이 지나 우리나라에서도 큰 비보이 대회가 열리게 되었을 때 비디오 속에서만 수없이 만났던 프랑스인 비보이가 심사위원으로 내한했고, 선현우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저에게는 엄청난 우상이었기 때문에 말 한 마디 나누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었는데, 오히려 그 비보이가 프랑스어를 이렇게 잘 하는 한국인 비보이는 처음이라면서 제게 악수를 청하고 기념촬영을 하자는 거예요.” 그때 절실하게 느꼈다고 한다. 언어가 통하면 기회가 열린다는 것을!

그의 이름 ‘선현우’는 외국인들이 발음하기에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지만, 그는 소신을 가지고 영어 이름을 따로 만들지 않았다. “외국인 친구들에게 제 이름을 처음 알려 주면, 일본 친구들은 ‘손상’이라고 하고, 중국 친구들은 ‘쑤’이라고 하죠. 그건 제 이름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친구들이 한국어를 어떻게 발음해야 할지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때마다 그 친구들을 붙잡고 1시간씩 한국어를 재미나게 가르쳐줬어요. 그렇게 제 이름으로 애기거러가 생기고 한국어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니 즐겁더라고요.” 그는 세계 어디서나, 누



구나 한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고, 다국어로 통할 수 있게 도와주는 회사를 5년째 운영하고 있다. 처음엔 개인 비디오 블로그를 통해 취미로 시작한 일인데, 지금은 10명이 넘는 멤버들이 함께 일한다. “직원 모두 제가 블로그를 통해 알게 된 친구들로, TalkToMeInKorean.com과 TalkToMeInEnglish.com의 인기 강사들이 예요. 195개국의 173만 명이 현재 저희 TTMIK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고 있으니 놀라운 일이지.”

그는 우리 나라 영어교육과 공부하는 사람들의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야말로 ‘통하는’ 언어를 해야 하는데, 골방에서 혼자 공부하다가 막상 사용할 기회가 생기면 도망 가고 좌절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요. 외국어 잘 하는 사람을 특별하게 대하는 신비주의나, 전투력 측정하듯 외국어 실력을 가능하고 비교 마인드로 주눅이 드는 것도 문제고요. 남녀노소 다국어가 자연스러운 벨기에 같은 나라에서는 외국어를 익히는 것이 자연거를 배우거나 시간이 가면서 요리 솜씨가 느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그는 외국어 한 마디를 배우면, 반드시 24시간 내에 그 말로 소통해볼 것을 권한다. 외국인 친구가 없다고? SNS에 올려 있다.

그는 인터뷰 내내 목을 움직이기 힘든 상태였는데도 목이 허락하는 순간까지 비보잉을 계속할 거라고 했다. “한 가지 동작을 새로 익히고 멋지게 척지했을 때의 기분은 정말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 순간 세상은 그 동작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으로 나뉘죠. 내가 이걸 몰랐다면 어쩔 뻔 했냐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polyglot 비보이’ 선현우! 그를 만나고 싶다면 매일 아침 6시 40분 EBS 라디오 ‘귀가 트이는 영어’를 들으며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해보자. 목소리도 예술이다.

polyglot

비보이

가 제안하는

무브꺼리

5

1. 소소한 일상이 특별해지는 비디오 블로킹

수년 전부터 스스로를 찍는 비디오 블로킹을 시작했다. 영상 속의 나는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언어로 말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린다. 지금까지 1천 편이 넘는 영상을 제작했는데, 볼 때마다 그 순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날 뿐만 아니라 솔직한 자신을 발견하고 인간적인 소통을 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2. SNS에서 다른 나라 친구와 이야기해보기

우리나라는 현재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핫(hot)한 나라다. 세계 어디를 가든 한국인이 말을 걸면 반가워한다. SNS에서도 마찬가지다. 두려움 없이 외국인 친구에게 한 마디 던지고 소통해보자.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싶다면 매주 월요일 7시 홍대 앞 클로리스에서 2백 명의 외국인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랭귀지캐스트(사진) 모임에 참가해보자.



3. 무엇이든 새로운 것 배우기!! (나는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다.)

지금은 무엇이든 배우고자 하면 도처에 선생님이 널려 있고, 선생들은 학생을 애대개 찾고 있다. 비보이이든 춤이든 무엇이든 새로운 것을 익히면 세상이 달라진다. 나는 두 달 전부터 1:1강습으로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너무나 좋다.



4. 젊을수록 두려움 없이 많은 곳을 여행하기

세계 어디든 결국은 다 사람이 사는 곳이다. 특정한 지역에 대한 두려움은 많은 경우, 편견이기 쉽다. 얼마 전 멕시코에서 전 직원이 참여한 TalkToMeInKorean 행사(사진)를 했는데, 두려워했던 멕시코를 사랑하게 되었다. 인턴십이든 워킹홀리데이든 돈 들이지 않고 외국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많고, 한 달에 몇 만원씩 모으면 1년에 한 번은 나갈 수 있다. 젊을수록 내 몸으로 많은 곳을 걸어보자.



5. 시야가 넓어지는 영화 Limitless 보기

마감을 앞두고 단 한 글자도 쓸 수 없는 블랙아웃(blackout) 상태를 겪게 된 작가(브래들리 쿠퍼)는 삼키는 순간 두뇌가 100% 가동되는 신약을 먹고 눈이 밝아져 엄청난 일들을 해내게 된다. 볼 때마다 오피마인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영화로 거듭 반복해서 보면서 주요 대사들을 다 외었다.



MUSE

소통의 비극 非劇

스토리텔러 김정예 — puri@bombaram.net

유대인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 중 한 사람은 장님이었다.

“여보게, 우리 우유라도 한 잔 마실까?”
“우유, 그게 어떻게 생겼지?”

장님이 묻자 다른 유대인이 우유는 흰 액체라고 대답했다.

“희다면, 흰 게 뭐지?”
“자네, 백조 알지? 백조가 하얗지.”
“응, 알겠네. 그런데 백조는 어떻게 생긴 것인지 모르겠군.”
“백조는 긴 목과 굽은 등을 가졌지.”
“굽은 등은 또 뭐가?”
“내 팔을 만져보면 알 수 있네.”

유대인이 장님에게 팔을 굽혀 만져 보게 해 주었다.

“오오, 이제 우유가 무엇인지 알겠네.”

〈탈무드〉 중에서



사전 경고

마음을 터놓고 진정으로 소통하는 것.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고, '아'하고 말해도 '어'하고 통하는 것. 소통은 인류의 오랜 숙원이자 꿈이었다. 나와 영혼이 통하는 단 하나의 사람, 소울 메이트를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러나 미리 말하자면 지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소통에 관한 낭만적인 보고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소통을 꿈꾼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함도 아니다. 소통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기서 읽기를 멈추고 앞서 읽은 탈무드 속 이야기로 돌아가기를 권한다. 당신이라면 장님에게 어떻게 우유를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고민하면서.

소통에 대한 비극의 역사

구약성서 창세기에는 바벨탑에 관한 짧고도 극적인 일화가 실려 있다. 이 이야기는 소통에 대한 비극의 역사다. 태초에 인류는 모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단어를 사용하며 살고 있었다. 서로의 지혜를 나누는 것에 어려움이 없었고, 같은 목표를 세우는 데 거침이 없었다. 마침내 그들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아 자신들의 존재를 널리 알리기를 원했다. 탑은 거침없이 솟아올랐다. 하지만 감히 하늘에 도전했던 이들에게 신은 벌을 내렸다. 신의 형벌은 단순했지만 확실했다. 다름 아닌 언어를 분리하는 것. 본래 하나였던 언어를 여럿으로 나누자 인간들은 불신과 오해를 거듭하며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혼돈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바벨탑이 무너진 이후, 인류의 역사는 소통을 둘러싼 갈등으로 점철되기 시작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마음은 물론 뜻도 통하지 않았고, 그 결과가 작게는 가정에서 크게는 국가에서 출몰하며 우리의 일상을 변주해 왔다.



소통은 불가하다

언어가 소통의 가능성을 증명한다면 화려하게 언어를 구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단어의 수가 증가하는 성인일 수록 소통에 거침이 없어야 하건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소통의 부재는 과거는 물론 지금도 여전히 화두이며, SNS를 포함한 각종 소통의 도구는 술한 오해와 의혹만을 남기며 소통에 대한 갈증만 높이고 있다. 소통하기 위해 익혀야 하는 언어와 도구는 역설적으로 소통의 불가능함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이해하는 사람이라 당신은 확신할 수 있는가? 상대방이 말하는 사람을 온전히 이해했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愛, Love, 사랑, Amour, 이 단어들이 품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과연 동일한 것이라 믿어도 되는 것인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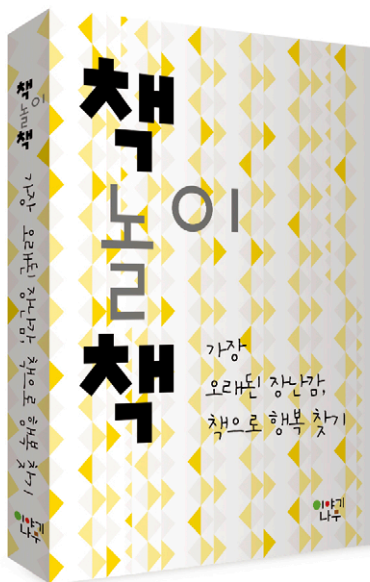
소통의 비극을 기억하라

완벽한 소통을 꿈꾸는 것은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 닿고자 했던 인류의 오만을 답습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바벨탑은 아무리 높게 쌓는다 하더라도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존재에 부딪혀 결국에는 무너지는 것이 숙명임을 기억하자. 우리가 키워야 하는 것은 소통의 능력이 아니다. 대신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 수없이 재창조된 노래와 희망을 말하기 위해 반복된 소설들을 탐닉해야 한다. 아름다운 풍경을 전하기 위해 화가들이 수천, 수만 번 놀렸을 붓의 움직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소통 비극의 빚어놓은 그간의 발자취를 더듬어가며 서로의 진심 언저리를 끊임없이 배회하는 것을 지쳐 하지 않는 체력을 키워야 한다.

책을 싫어하는 아이, 책을 읽고 싶은 엄마

독서를 놀이로 바꾸는 8가지 교육법,

책 놀이 책



『책 놀이 책』

가장 오래된 장난감, 책으로 행복 찾기

오승주 지음 | 김라연 그림 | 248쪽 | 15,000원

강남의 논술 강사로 일하면서 느낀 역설적인 깨달음과 '책요정'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경험이 책으로 완성되었다. 사교육에 길들여져 획일적인 사고를 하는 아이들과 부모의 고민을 동시에 마주하며 책으로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장난감인 책을 통해 가족 간 소통의 벽을 허물고, 자존감을 높이는 행복한 책 놀이를 소개한다.